



양계산업과 동물복지 연계된 정책 발의 <미국>

미국 동물보호협회(HSUS)와 계란 생산자 연합(UJEP)은 자국의 계란 생산과 관련하여 전례 없이 새롭고 포괄적인 연방법률 제정안을 발표.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농장에서 가축관리를 다루는 최초의 연방법이 될 전망

-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시 90%이상 사용되고 있는 재래식케이지 사육공간을 약 2배정도 넓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위해 10년간 4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 케이지의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산란계가 햇대에 앉거나 동지를 만들고, 바닥을 파헤치는 등 닭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가능해진다.
- 더불어 기존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 새로운 케이지 시스템에서 생산된 계란,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계란, 방목한 닭에서 생산된 계란 등 다양한 생산 방식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이 법률안에는 산란계의 인락사에 대한 미국수역사회(AVMA) 승인 기준, 산란계 사육장의 과도한 암모니아 수준 제한, 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계란과 관련 제품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계란 생산자 연합회장 Bob Krouse은 "미국의 계란 생산자들은 지속적으로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산란계의 복지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축, 고객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전했다.

[조사지] 박우주 과장

[원문출처]

<http://www.thepoultrysite.com/poultrynews/23063/joint-proposal-for-national-layer-housing-rules>

옥수수로 생산된 에탄올 지원중단을 촉구하는 웹사이트 구축 <미국>

식육생산가공협회는 비싸지고 있는 식육 및 양계산물과 옥수수로 생산되는 에탄올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지지해 줄 것을 촉구

비싸지고 있는 식품가격과 연방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웹사이트(www.cornforfoodnotfuel.com)가 미국의 대규모 식육 및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구성된 식육생산가공협회에 의해 구축되었다.

식육과 양계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가 상승하였는데 이 웹사이트는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에탄올의 생산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의 40%는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산 에탄올의 대부분은 옥수수에서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에탄올의 생산 증가는 전통적으로 사료를 옥수수로 사용하고 있는 축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솔린에 에탄올 혼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

행된 이후 옥수수 가격이 3배가량 인상되었으며 더불어 축산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비싸진 옥수수 가격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연방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옥수수로 생산된 에탄올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식량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조사지] 박성웅 과장

[원문출처]

<http://www.thebeefsite.com/news/35243/website-seeks-to-end-cornethanol-federal-support>